

# 한류열풍타고 관광객 사로잡아

### 전북도, 일본·홍콩 관광객 유치 홍보 활동 전개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하반기 일본·홍콩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본 '이시카와현 한국문화관광 세미나'와 '홍콩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전북여행 상품 홍보를 실시했다.

먼저, 지난 12일 일본 이시카와현 세미나실(카나자와 고린보 플라자)에서 한국관광 가능성이 높은 이시카와현 현지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 관광 설명회와 더불어 한지공예 체험 행사(2회)를 열었다.

도는 이날 세계문화유산이자 특히 일본인이 많은 관심을 갖는 미쓰사지와 왕궁리 유적, 건립 600주년이 되는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상품으로서의 전북여행 상품을 홍보하는데 이어 전북한지체험 명인과 함께하는 청

사초롱 한지등(燈)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다. 13일에는 1500여명이 참여한 '소비자 이벤트' 행사장(이시카와현립음악당)에서 전라북도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한류스타와 함께 하는 관광홍보 토크쇼와 함께 전라북도 미식여행상품과 한과(韓菓)체험이 이뤄져 일본인의 입맛과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전북도는 홍콩 관광객에게 전북의 가을 단풍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홍콩에서 열리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했다.

4일간(6.13~16) 홍콩 현지 여행사 대상 상담회와 일반인 관광객 대상 홍보를 집중 실시했다.

홍콩국제관광박람회는 2018년 기준

약 10만여 명이 관람한 대형 국제관광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홍콩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을 단풍 관광상품과 영화·드라마 및 방탄소년단(BTS) 앨범 촬영지 등을 연계한 한류여행상품을 활용해 전북여행 상품을 집중 홍보했다. 가을 단풍과 한류여행상품이 결합되면 홍콩 관광객의 도내 체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어 전북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일본 관광객에게는 전북의 장점인 전통문화와 맛을 어필하고 홍콩 관광객에게는 계절 여행상품과 한류를 어필하여 일본·홍콩 관광객을 유치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관광시장에서 전북관광의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정읍 방문의 해 선포'** 정읍시는 지난 14일 서울 KTX용산역에서 '김동 호르문 분출, 체험여행 1번지 정읍'을 비전으로, '2019-2020 정읍 방문의 해'를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정읍 방문의 해를 대내외에 알리고 정읍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그리고 투어리즘을 활용한 정읍관광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8면>

## 군산2국가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최종 선정 '쾌거'

###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기대

군산시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홍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5월 전국 13개 산업단지가 신청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민간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전북에서는 군산2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021년까지 총사업비 9억 7500만원(국비 28억원, 지방비 69억 7500만원)을 투입해 산

단지 내 부족한 문화, 복지, 편의기능 등이 집적된 복합센터를 건립해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산복합문화센터는 오식도동 생말체육공원 내 부지 1,300㎡에 연면적 3,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산단민원센터, 기업지원센터,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등을 집적해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체육단련장, 다목적극장, 옥외정원 등을 두어 입주기업 및 지역주민이 레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군산국가산업단지 '노후거점산단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선

정함에 따라 기반시설 정비 및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등 정부합동공모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본부장은 "복합문화센터가 군산 서부권 문화 거점 기능 및 입주기업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준 군산시장은 "군산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선정 및 추진을 시작으로 군산시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근로자 및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청장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청년로컬 소셜 벤처' 교육수료식 성료

### 혁신BM모델 발표로 지역에 청년 활력 기대 14개 지자체·지역멘토와 미니간담회도 열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4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층에서 청년혁신가 74명을 비롯해 지역전담 멘토, 교육운영기관,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디자인씽킹 창의혁신교육 수료식 및 최종 청년혁신가 선정 발표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은 14곳 지자체 담당 및 지역멘토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미니간담회도 함께 열려 지역에서의 청년혁신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졌다.

시군 청년혁신가는 지역고유 문화자산 등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와

유망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 청년 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운영한 첫 시군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지난 4월 51팀 83명이 선정되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군 청년혁신가들은 디자인씽킹 해커톤, 찾아가는 시군 권역별 교육 등 총 7주치의 교육 통해 혁신아이템을 구체화시키고 창업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총 49개팀 74명(89%)이 수료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최종 선정 발표를 통과한 팀은 각 시군 지자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시제품제작지원 및 맞춤형 1:1 컨설팅, 우수팀 크라우드 펀딩지원, 특허보증 등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전국의 로컬 크리에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간 교류 지원도 받게 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시군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과 지역고유특화자원을 이용한 청년창업 성공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역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지역만의 청년창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 청년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더욱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소방본부, 안전문화 조기 정착위해 발벗고 나서

###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성료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4일 오후 2시에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송하진 도지사, 마재운 전북소방본부장을 비롯해 11개 팀의 참가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전북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고 밝혔다. 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내 유치부 5팀(136명)과 초등부 6개팀(167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와 JT전주방송이 주최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한국

소방안전원 전북지부, 한국화재보험협회 광주호남지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지난 2002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로 명실상부 도내 최고의 동요 경연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아이들이 꿈과 안전을 노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 성장해 나가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멋진 자연경관에 이색적인 체험까지!

### 전북 블로그기자단, 남원 노봉혼불문학마을서 워크숍 SNS·블로그 등에 후기 작성해 전북도 농촌관광 홍보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이 '전북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알리기 위해 뭉쳤다.

도 블로그 기자단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남원 노봉혼불문학마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블로그 기자단의 도정 이해 및 전라북도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워크숍 1일차에는 혼불문화관과 서도역 등 노봉혼불문학마을 주변 명소를 둘러보고, 최명희문화관 이진숙 전문위원의 <소설 '혼불' 속 전북

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의와 블로그 기자단 역량 강화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강의를 진행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공예체험 등을 하며 농촌체험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이난희(48·서울) 블로그 기자는 "멋진 자연경관에 이색적인 체험까지 농촌체험마을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색다르게 다가왔다"며 "올 여름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 농촌체험마을로 휴가를 오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워크숍 후기는 도 공식 블로그와 기자들의 개인 블로그 및 SNS에도 게시돼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전북 농촌관광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알리기 위해 도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해 7월부터 도 공식 블로그에 '전라북도 농촌관광여행' 체험 시리즈를 연재, 홍보할 예정이다.

이형열 도 홍보기획과장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테마로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도정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 농촌체험마을로 관광을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